

宗教 定義의 批判 (七)

哲學博士 金永羲

宗教의 現象을 本質的, 偶然的, 臨時的, 歷史的으로 區別할 수 잇슬 것이다. 或 內面的-即 最高 實在와 사람 사이의 內的 經驗과 그 經驗의 外的 表現으로 區別할 수 잇스며 다시 宗教現象을 感情的, 認識的, 失行的으로 區別할 수 잇슬 것이다. 엇더한 區別로 推究하든지 宗教現象의 重要素된 屬性을 敍述하며 敍述 뿐이 아니라 敍迷된 屬性의 全部가 能히 宗教生活의 全部를 表現하여야 할 것이다. 그 定義의 分類된 區別과 그 區別이 說明하는 局性들이 宗教生活의 全部가 아님에서 不滿足한 定義가 생기는 바이다.

宗教는 價値不滅과 價値創作에 疑心 업는 信仰을 가진다. 이 宇宙에는 一定한 目的이 잇고 그 方向을 向해 우리의 人類生活은 向上한다고 信仰한다. 사람이 自己의 人格을 놓히는데 必要되는 모든 價値를 生活의 要素로 삼는가? 慈悲, 博愛, 人情, 好意, 人類愛 모든 것이 우리 生活의 成分的 價値고 이 價値를 爲하여 提供된 우리의 努力은 形蹟업시 消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努力만큼 우리 人類 삶은 價値잇슴을 信仰한다. 眞理를 차저 病的 根源을 차저 亞弗利加에 가서 研究하다가 科學研究에 殉死하는 그들이 眞理의 價値를 推仰하듯이 宗教도 사람이 가진 엇더한 價値든지 그 價値를 爲하여는 自己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하다 主張한다. 사랑을 爲하여 열두 해를 길게 녀치지 안코 그 사랑의 對象을 어드려고 努力하는 그 마음과 가티 宗教는 모든 問題가 사랑으로야만 解決되겟다는 決心的 信仰을 가졌다. 우리가 누구에게 善을 할 쟈 그이가 그 善을 理解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 善의 無上價値를 認定하듯 宗教도 비록 惡이 善을 이기는 듯하고 □가 애매한 者를 이기는 듯하나 結局은 善이 勝利하는 것을 밋는다.

文學의 創作을 神과 가티 音樂의 美를 神과 가티 永遠하다고 信仰하듯이 宗教도 모든 美의 價値는 消滅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다운 生活은 더 큰 美의 價値를 創作함이라고 主張한다. 나는 나의 人道를 나의 宗教로 나는

科學을 나의 宗教로 나의 慈善을 나의 宗教로 나는 音樂의 調和를 宗教로 認定한다는 主張과 가티, 宗教는 사람의 모든 價値 --(眞, 善, 美의 모든 價値를 包含한 모든 價値)--를 사람의 삶의 理想이라고 信仰한다.

그러나 宗教는 價値에 對한 信仰 쏠에 끈치지 않는다. 斷片的 價値를 最上의 理想으로 主張하는 科學者, 藝術家, 倫理者보다 宗教는 더 한 거름 나가서 그 價値의 主體者를 찾고 그 主體者와 神秘的 精神調和를 찾는 것이다.